

미국 샐러드 드레싱 및 디핑소스 트렌드

보다 다양하고 건강한 냉장 드레싱 및 디핑소스 상품, 지속적인 성장세

오늘 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한 식단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을 추구하고 있다. 샐러드 드레싱과 디핑소스 산업은 샐러드와 날채소 및 기타 식품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건강하고 혁신적인 선택으로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왔다.



플로리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코토 드레싱사의 버지 블레이어 세일즈 매니저는 전통적인 샐러드 드레싱에 건강한 대안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르세티사의 메리 베스 코월딘 마케팅 국장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샐러드 드레싱과 디핑소스, 양 분야 모두에서 건강과 웰빙이란 이슈가 소비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유로 동사의 "Simply Dressed" 드레싱과 "Greek Yogurt Veggie Dip" 상품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뉴욕주 윌리엄스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탑스마켓사의 덴 오코너 대리는 더욱 다양하고 보다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에 대한 수요 증가는 샐러드와 양상추의 판매증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다.

더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벤추라 푸드/마리스 샐러드 드레싱사의 마르치 니드햄 시장분석국장은 냉장 샐러드 드레싱 상품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은 냉장 샐러드 드레싱 상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상품보다 더욱 건강하고, 프리미엄화된 상품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판매대 진열 상품이 다량의 방부제를 포함하고 있으리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변화된 옵션에 대한 수요는 맛 선택의 다양성을 내포한다. 마코토 드레싱사의 블레이어 매니저는 보다 건강한 대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가적인 풍미를 가미하는 것이 신 트렌드라고 강조하고, 동 사에서는 현재 건강에 좋은 요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는 생강이 드레싱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추라/마리스 샐러드 드레싱사의 니드햄 시장분석국장은 지중해식 풍미나 비네그레트, 요거트에 기반한 드레싱이 건강이나 맛에 있어 현재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다양한 국내 브랜드들이 요거트를 기반으로 한 샐러드 드레싱을 도입해왔으며, 처음에는 레스토랑에서 인기를 얻다가 소매시장으로 확산된 디핑 소스 또한 최근 들어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세티 사의 코월딘 국장은 지난 몇 년간 요거트에 기반한 드레싱이 성장해왔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이에 따라, 요거트를 재료로 한 "Simply Dressed" 드레싱을 신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요거트로 만든 드레싱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 상품을 고품질, 저지방 건강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맛으로는 레드와인, 샐러리 씨앗, 라즈베리, 구운 토마토 등이 있다.



코월딘 국장은 소비자들은 블루치즈나 랜치처럼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전통적인 맛 이외에도, 흥미를 유발시키는 새로운 맛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동 사의 "Simply Dressed" 드레싱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오메가3 ALA를 공급하는 카놀라유, 천일염과 같은 필수적인 재료만을 사용하고, 방부제, MSG, 기타 인공적인 맛이나 색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벤추라푸드/마리스 샐러드 드레싱의 니드햄 국장은 맛의 혁신이 드레싱 품종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데에 동의하면서, 동사는 현재 레몬 비네그레트 드레싱을 도입 중으로, 시트러스 베이스의 비네그레트 드레싱은 닭고기나 돼지고기, 생선을 위한 가벼운 샐러드 마리네이드로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다.

코윌딘 국장은 샐러드 드레싱은 현재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레몬 비네그레트, 체리 발사믹 및 발사믹 비네그레트는 점차 대중화되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게 선호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탑스 마켓의 오코너 국장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발사믹, 비네그레트, 유기농 및 고메(gourmet) 드레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비네그레트를 이용한 드레싱이 선두를 달리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핑소스와 혼합



채소 및 과일용 디핑소스에서도 맛 선택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식습관은 1일 3식에서, 조금씩 다섯 번으로 나누어 먹거나, 아침, 점심, 저녁식사에 한 두 번의 스낵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칩이나 과자류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건강한 대안을 찾고 있고, 여기에 디핑소스는 과일과 날 채소의 풍미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먹음직스런 방안이 될 수 있다.

코윌딘 국장은 소비자들은 점점 더 자주 간식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디핑소스 상품의 판매를 위한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채소용 디핑소스의 경우, 어머니들이 이를 자녀들의 스낵대용으로서의 채소 섭취를 돕는 대안으로 인식하는 한 지속적으로 인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건강한 디핑소스는 칩이나 프레첼과 같은 스낵에도 훌륭한 보완재가 될 수 있다. 마코토 드레싱 사의 블레이어 매니저는 건강한 대안으로서, 새롭고 혁신적인 풍미를 제공하는 디핑소스의 매출이 약간의 증가세를 경험했다고 밝히고, 채소, 과일, 칩, 빵, 샌드위치용 스프레드, 랩, 혹은 굽거나 삶은 감자, 찐 녹색 콩의 소스로도 사용되는 디핑 소스는 다양한 식품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쓰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자사의 상품을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윌딘 국장에 따르면, 그리스식 요거트의 인기는, 마르세티 사의 "믹스 베리 메들리"와 "스윗 바닐라 시나몬"과 같은 비전통적인 맛을 가미한 디핑 소스 등 다양한 식품 분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그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캐주얼한 모임이건 혹은 공식적인 자리이건 상관없이, 디핑소스가 가족이나 친구 단위 초대요리에 훌륭한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품 마케팅

소비자들이 이러한 신규 샐러드 드레싱과 디핑소스 제품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냉장 진열대에서 소비자의 바구니 속으로 상품을 이동하게 만드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최신 개발된 맛과 종류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제품의 프로모션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벤추라 푸드/마리스 샐러드 드레싱의 니드햄 국장은 양쪽 끝의 진열대에 샐러드 드레싱과 디핑소스를 생산물과 같이 진열해 놓는 것이 소매 판매를 증대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동 상품들이 닭고기, 스테이크, 생선, 돼지고기 양념용으로도 훌륭하다고 홍보하는 방법 또한 판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윌딘 국장은 생산물 섹션에 드레싱과 디핑소스를 같이 판매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각 상품에 가장 어울리는 드레싱이나 디핑소스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또한,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사과 옆에 카라멜 디핑소스를 두어 판매하는 식이다. 이는 사과와 카라멜 디핑소스 모두를 성공적으로 판매하기 위

해 이미 입증된 방안이다.

또한 탑스 마켓사의 오코너 매니저는 드레싱과 디핑소스를 진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상추, 크루톤, 날채소 및 기타 샐러드용 재료 옆에 샐러드 드레싱과 디핑소스를 함께 놓아 토털 샐러드 솔루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코윌딘 국장 역시 동 의견에 동의하며 드레싱을 양상추 및 일반적으로 샐러드 레시피에 사용되는 과일 및 채소 옆에 진열하는 것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욱 구매를 손쉽게 만들고, 이는 디핑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날채소와 과일, 특히 미리 손질된 상품 옆에 놓아두면, 점심이나 스낵용으로 집어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더욱 건강하게 먹거리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은 지속되고 있고, 이는 향후 드레싱과 디핑 소스의 혁신적인 맛과 용도 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드레싱과 디핑소스는 생산물은 더욱 다변화되고, 식단은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